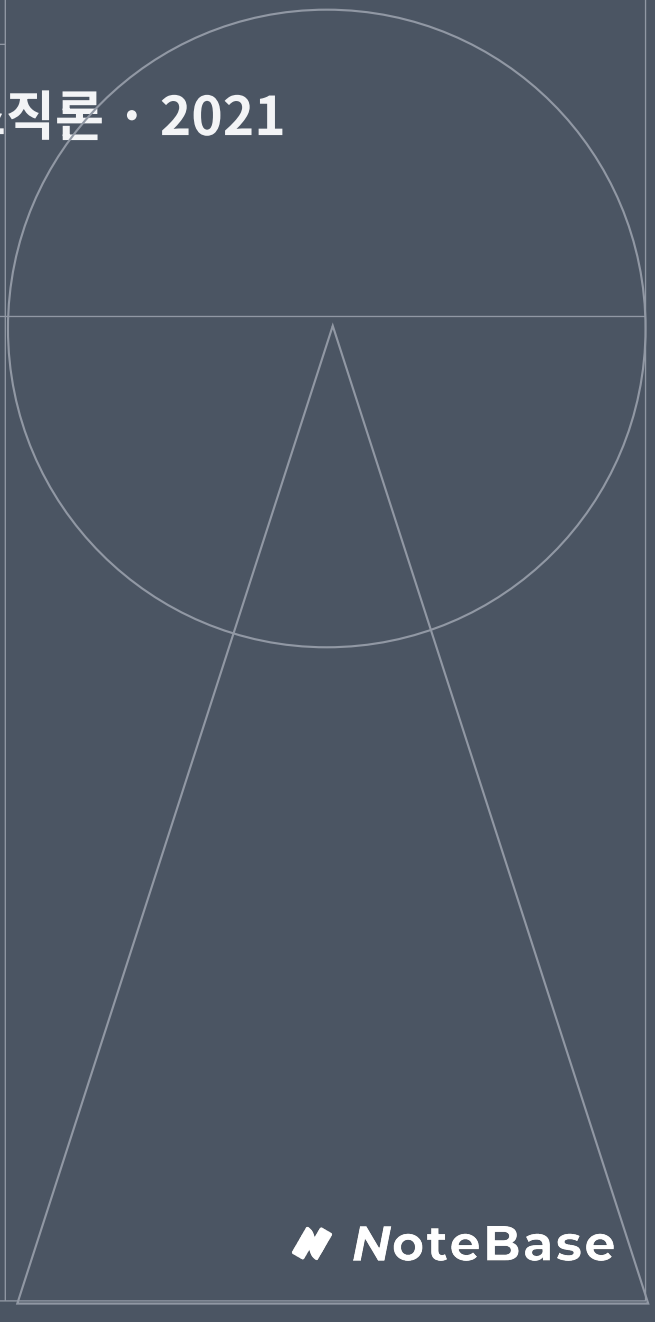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1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1

1. 각종 분류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뤼네(J.C. Brunet)의 분류법은 파리서적상 분류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아라비아 정수를 기호로 사용하고 있다.
   ② 노데(G. Naude)의 분류법은 12개의 주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 분류법의 기초가 되었다.
   ③ 브라운(J.D. Brown)의 주제분류법은 개가제 환경에 유용한 동일 장소이론(one-place theory)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제를 추가로 세분하기 위해 범주표를 사용하고 있다.
   ④ 블리스(H.E. Bliss)의 서지분류법은 주류배열의 순서를 점진성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철학과 종교 등을 상위에 배열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브뤼네·노데·브라운·블리스의 분류법을 각 분류법의 기초, 주류 구성, 분류 원리와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브뤼네(J. C. Brunet): 파리서적상 분류법을 토대로 발전했으며 아라비아 숫자를 기호로 사용한다.
노데(G. Naudé): 12개 주류로 구성된 분류법을 제시하여 프랑스 분류법의 기초를 이루었다.
브라운(J. D. Brown): 주제분류법에서 동일 주제를 한곳에 모으는 동일 장소이론을 채택하고, 범주표로 주제를 세분한다.
블리스(H. E. Bliss): 서지분류법의 주류를 점진성의 원칙에 따라 배열하되 철학과 종교를 함께 상위에 두는 배열은 취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브뤼네의 분류법은 파리서적상 분류법을 바탕으로 하며, 분류기호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O — 노데의 분류법은 12개의 주류로 구성되며 이후 프랑스 분류법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③ O — 브라운의 주제분류법은 한 주제를 여러 곳에 흩어 놓지 않고 한곳에 모으는 동일 장소이론을 채택하며, 범주표를 이용해 주제를 추가로 세분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철학과 종교 등을 상위에 배열'한다는 표현이다. 블리스의 서지분류법은 점진성의 원칙을 반영하지만, 주류는 철학을 앞세운 뒤 과학·역사·기술 및 예술 등으로 전개되며 철학과 종교를 함께 상위에 배열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는 블리스의 '점진성의 원칙'이라는 맞는 설명에 '철학과 종교를 상위에 배열한다'는 틀린 배열 설명을 결합했다. 한 문장에 맞는 특징과 틀린 특징이 함께 있으면 전체 선지는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명과 대표 키워드를 먼저 연결한 뒤, 기초가 된 분류법·주류 수·동일 장소이론·주류배열의 순서를 각각 따로 확인한다. 복합 선지는 각 절을 분리하여 하나라도 틀리면 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브뤼네=파리서적상·아라비아 숫자, 노데=12주류·프랑스 분류의 기초, 브라운=동일 장소이론·범주표, 블리스=점진성·철학과 종교의 동시 상위 배열 아님이다.

NoteBase

2. 자료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가분류나 서지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분류(artificial classification)이다.
② 주제나 대상의 취급된 관점에 따라 분류하는 관점 분류(aspect classification)이다.
③ 유사성에 따라 유개념에서 종개념까지 점진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로 유별 군집이 이루어진다.
④ 지식을 분류의 대상으로 삼아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이자 지식 세계에 대한 인식적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자료분류의 여러 유형과 분류 과정의 의미를 구별하고, 자료분류와 지식분류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위적 분류: 서가 배열이나 서지적 조직처럼 실용적인 목적에 맞추어 자료를 구분하는 분류이다.
관점 분류: 동일한 주제나 대상도 어떤 관점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분류이다.
자료분류: 자료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조직하여 배열과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지식 자체의 체계와 인식적 지도를 만드는 지식분류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인위적 분류는 실용적인 목적에 맞추어 자료를 나누는 분류이므로, 서가분류나 서지분류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② O — 주제나 대상이 어떤 측면에서 취급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관점 분류이다.
③ O — 분류는 공통되는 유사성을 기준으로 유개념에서 종개념으로 점차 세분하며, 그 결과 같은 속성을 지닌 대상들이 유별로 군집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지식을 분류의 대상으로 삼아'와 '지식 세계에 대한 인식적 지도를 만든다'는 표현이다. 이는 자료분류가 아니라 지식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자료분류는 자료를 분류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검색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체계적으로 구조화한다'는 말 때문에 자료분류처럼 보이지만, 분류 대상이 '지식'이고 결과가 '지식 세계의 인식적 지도'라는 점에서 지식분류를 설명한다. 문제의 '옳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분류의 대상을 확인한다. 자료의 배열·검색을 위한 조직이면 자료분류이고, 지식 자체의 체계와 인식적 지도를 구성하면 지식분류이다. 그다음 목적이 실용적이면 인위적 분류, 취급 측면이 기준이면 관점 분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료분류는 자료의 배열·검색, 지식분류는 지식 세계의 인식적 지도이다.

NoteBase

3. 분류법(분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DC는 현재 23판까지 간행되었으며, DDC 23판에 대응되는 간략판은 15판이다.
② UDC는 서가배열보다 정보검색을 위한 서지분류의 성격이 강하다.
③ LCC는 각 주제별로 분책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발간한 주류는 Z류(서지, 도서관학)이다.
④ 일본도서관협회에서 NDC의 개정작업을 시작한 것은 제6판부터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DDC·UDC·LCC·NDC의 판차, 주된 용도, 간행 방식과 개정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LCC에서 '먼저 개발한 주류'와 '먼저 발간한 주류'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DDC는 지식을 10개 주류로 나누는 열거식 십진분류법이고, 간략판은 소규모 장서를 위해 본표를 축약한 판이다.
UDC는 DDC를 바탕으로 전개된 분석합성식 분류법으로, 서가 배열에도 쓰이지만 기호를 결합하여 주제를 상세히 표현하므로 서지·정보검색 도구의 성격이 강하다.
LCC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장서를 조직하기 위해 만든 열거식 분류법으로, 각 주류의 분류표가 분책 형태로 개발·간행되었다.
NDC는 일본십진분류법이며, 일본도서관협회가 신정 제6판부터 개정 작업을 맡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DDC 본표는 제23판까지 간행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최신 간략판은 제15판이므로 옳다.
② O — UDC는 복합 주제를 상세히 표현할 수 있는 분석합성식 구조를 갖추어, 단순한 서가 배열보다 서지 분류와 정보검색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옳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가장 먼저 발간한 주류는 Z류'이다. Z류(서지·도서관학)는 가장 먼저 개발 대상으로 선택되었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발간된 분류표는 1901년의 E-F류(아메리카 역사)이고 Z류는 1902년에 발간되었다. 올바르게는 '가장 먼저 개발한 주류는 Z류이지만, 가장 먼저 발간한 주류는 E-F류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NDC는 모리 기요시가 창안했으며, 일본도서관협회가 개정 작업을 맡기 시작한 것은 신정 제6판부터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Z류가 분류 작업의 기초가 되는 서지·도서관학이어서 가장 먼저 개발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를 가장 먼저 '발간'되었다고 바꾸어 놓았다. 개발 순서와 실제 간행 순서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법 문항에서는 판차, 주된 용도, 개정 주체, 개발 순서와 발간 순서를 각각 분리해 판단한다. LCC의 최초 관련 선지는 '개발은 Z류, 발간은 E-F류'로 구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DDC 23판·간략 15판, UDC는 검색 지향, LCC는 개발 Z·발간 E-F, NDC 협회 개정은 6판부터이다.

NoteBase

4. 분류법(분류표)의 초판이 발간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CC)
> ㉡ 브라운의 주제분류법(SC)
> ㉢ 듀이의 십진분류법(DDC)
> ㉣ 커터의 전개분류법(EC)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주요 문헌분류법의 초판 발간 연도를 알고 이른 것부터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ㄷ 듀이의 십진분류법(DDC) — 1876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2. ㄹ 커터의 전개분류법(EC) — 1891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3. ㄴ 브라운의 주제분류법(SC) — 1906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4. ㄱ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CC) — 1933년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따라서 발간 연도를 오름차순으로 배열하면 ㄷ → ㄹ → ㄴ → 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ㄴ(SC, 1906)을 ㄷ(DDC, 1876)보다 앞에 둔 것이 틀렸고, ㄱ(CC, 1933)도 ㄹ(EC, 1891)보다 앞설 수 없다. 틀린 배열 ㄴ → ㄷ → ㄱ → ㄹ은 올바르게는 ㄷ → ㄹ → ㄴ → ㄱ이다.

② X — ㄹ(EC, 1891)과 ㄴ(SC, 1906)의 선후관계를 뒤바꾼 것이 틀렸다. 틀린 배열 ㄷ → ㄴ → ㄹ → ㄱ은 올바르게는 ㄷ → ㄹ → ㄴ → ㄱ이다.

③ O — ㄷ(DDC, 1876) → ㄹ(EC, 1891) → ㄴ(SC, 1906) → ㄱ(CC, 1933)으로 초판 발간 연도가 빠른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 ㄴ(SC, 1906)을 ㄷ(DDC, 1876)보다 앞에 둔 것이 틀렸다. 틀린 배열 ㄴ → ㄷ → ㄹ → ㄱ은 올바르게는 ㄷ → ㄹ → ㄴ → 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듀이의 DDC가 가장 이르고 랑가나단의 CC가 가장 늦다는 사실만으로는 ②와 ③을 구별할 수 없다. 중간의 EC와 SC는 EC(1891)가 SC(1906)보다 먼저라는 선후관계가 정답을 가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분류법을 기호가 아니라 초판 연도로 바꾼 뒤 연도를 오름차순으로 배열한다. 이 문항에서는 1876, 1891, 1906, 1933의 순서에 각각 DDC, EC, SC, CC를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초판 연도는 DDC 1876 → EC 1891 → SC 1906 → CC 1933으로 기억한다.

NoteBase

5. UD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초판부터 언어를 문학에 포함시켜 '4'는 공기호로 남아 있다.
> ㉡ 일부 보조표는 독립적인 분류기호로 사용될 수도 있다.
> ㉢ 자연과학, 물리학의 분류기호는 각각 '5'와 '53'이다.
> ㉣ 한 개의 주분류에 여러 개의 공통보조분류를 동시에 부가할 경우 그 순서는 '장소-형식-언어' 순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UDC의 주류표 역사, 보조표와 보조기호의 구별, 주류 분류기호, 공통보조분류의 결합 순서를 함께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UDC는 지식 전 분야를 주류표에 배열하고, 공통보조분류를 주분류기호에 결합하여 언어·형식·장소 등의 측면을 나타내는 분석합성식 분류법이다. 현재 4는 공기호이고 언어와 문학은 8에 통합되어 있지만, 이는 초판부터의 배열이 아니다. 자연과학은 5, 물리학은 53이며, 장소·형식·언어를 함께 부가할 때에는 장소-형식-언어 순으로 배열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을 묶었으나 둘 다 옳지 않다. ㄱ의 틀린 표현은 '초판부터'이다. 초창기에는 언어가 4, 문학이 8에 배정되었고, 뒤에 언어가 8로 옮겨져 문학과 통합되면서 4가 공기호가 되었다. ㄴ의 틀린 표현은 '보조표는 독립적인 분류기호'이다. 보조표 자체가 분류기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표에 수록된 일부 공통보조기호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ㄷ은 옳지만 ㄱ이 옳지 않다. UDC에서 자연과학은 5, 물리학은 53이지만, 4가 공기호가 된 것은 초판부터 언어를 문학에 포함했기 때문이 아니다. '초판부터'를 '후에 언어가 8로 이동·통합되면서'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③ X
ㄹ은 옳지만 ㄴ의 표현이 옳지 않다. 여러 공통보조분류의 배열은 장소-형식-언어 순이지만, 보조표 자체를 독립적인 분류기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보조표에 수록된 일부 공통보조기호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④ O
ㄷ과 ㄹ은 모두 옳다. 자연과학의 분류기호는 5이고 그 아래 물리학은 53이며, 한 주분류에 장소·형식·언어의 공통보조분류를 함께 부가하면 장소-형식-언어 순으로 배열한다.

오답 포인트

ㄱ의 '초판부터'라는 시점 표현과 ㄴ의 '보조표'와 '보조기호'의 혼동이 핵심 함정이다. 현재 4가 비어 있다는 사실만 보고 그 상태가 초판부터 계속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보조표와 그 안의 보조기호를 같은 것으로 보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DC 문항에서는 먼저 주류 번호를 확인하고, 역사적 변화가 있는 진술은 '초판부터' 같은 시점 표현을 따로 점검한다. 이어 보조표와 보조기호를 구별하고, 복수의 공통보조분류는 장소-형식-언어의 배열 순서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UDC는 5 자연과학, 53 물리학, 4 공기호이며, 공통보조분류는 장소-형식-언어 순이다.

NoteBase

6. KDC 제6판과 DDC 제23판의 분류기호를 짝지은 것이다. 밑줄 친 분류기호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KDC 제6판	DDC 제23판
①	74<u>2</u>	05<u>2</u>
②	03<u>1</u>	915.<u>19</u>
③	81<u>2</u>	81<u>2</u>
④	74<u>8</u>	42<u>7</u>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과 DDC 제23판에서 밑줄 친 숫자가 나타내는 언어·지역·문학 형식·방언의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류기호의 각 숫자는 분류표의 전개 방식에 따라 언어, 지역, 문학 형식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같은 숫자라도 분류표와 자리 위치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모양이 아니라 해당 기호가 가리키는 개념을 비교해야 한다.
KDC 031의 밑줄 친 1은 한국어를 나타내지만, DDC 915.19의 밑줄 친 15.19는 아시아 중 한국이라는 지역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KDC 742의 밑줄 친 4와 DDC 052의 밑줄 친 2는 모두 영어를 나타낸다.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둘 다 영어를 뜻한다.
② O — KDC 031의 밑줄 친 1은 한국어를 나타내는 언어 구분이고, DDC 915.19의 밑줄 친 15.19는 아시아의 한국을 나타내는 지역 구분이다. 하나는 언어, 다른 하나는 지역이므로 의미가 서로 다르다.
③ X — KDC 812와 DDC 812의 밑줄 친 2는 모두 문학 형식인 희곡을 나타낸다.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둘 다 희곡을 뜻한다.
④ X — KDC 748의 밑줄 친 8과 DDC 427의 밑줄 친 7은 모두 영어의 방언 또는 변이와 관련된 구분을 나타낸다.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둘 다 영어의 방언·변이를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한국어'와 '한국'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한국어는 언어 구분이고, DDC 915.19의 한국은 지리적 지역 구분이므로 분류상 의미가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숫자를 그 자체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 분류기호 속에서 그 숫자가 언어·지역·문학 형식·방언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먼저 풀어 쓴 뒤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031의 1은 한국어, 915.19의 15.19는 한국 지역이다. 812의 2는 희곡이며, 748의 8과 427의 7은 영어 방언·변이이다.

NoteBase

7. KDC 제6판의 별법 또는 양자택일 규정을 적용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농업 관련 법령』: 368.052 또는 520.23
> ㉡ 『생명과학 목록』: 016.47 또는 470.26
> ㉢ 『기독교 잡지』: 078.23 또는 230.5
> ㉣ 『미국소설』: 843 또는 849.3

① ㉠, ㉡
② ㉢, ㉣
③ ㉠, ㉡, ㉣
④ ㉠, ㉡.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에서 별법 또는 양자택일 규정에 따라 두 분류기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별법·양자택일 규정은 같은 자료를 서로 다른 관점이나 배열 목적에 따라 두 위치 중 한 곳에 분류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제시된 두 기호가 모두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도서관의 장서 구성과 분류 방침에 맞추어 둘 중 하나를 일관되게 선택한다.
ㄱ 농업 관련 법령: 법령의 관점에서 368.052에 두거나 농업의 관점에서 520.23에 둘 수 있다.
ㄴ 생명과학 목록: 목록·서지의 관점에서 016.47에 두거나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470.26에 둘 수 있다.
ㄷ 기독교 잡지: 잡지의 관점에서 078.23에 두거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230.5에 둘 수 있다.
ㄹ 미국소설: 영어권 소설로 보아 843에 두거나 미국문학을 별도로 전개하여 849.3에 둘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만 고른 것이 틀리다. ㄷ과 ㄹ도 별법 또는 양자택일 규정의 적용 사례이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② X — ㄷ과 ㄹ만 고른 것이 틀리다. ㄱ과 ㄴ도 각각 368.052 또는 520.23, 016.47 또는 470.26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③ X — ㄱ, ㄴ, ㄹ만 고르고 ㄷ을 제외한 것이 틀리다. 기독교 잡지도 078.23 또는 230.5에 분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다.
④ O — ㄱ, ㄴ, ㄷ, ㄹ이 모두 KDC 제6판의 별법 또는 양자택일 규정에 따라 제시된 두 기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또는’을 두 기호 중 하나가 오기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네 쌍은 형식과 주제, 또는 문학의 전개 방식이 달라 생기는 선택지이며, 일부만 인정하는 ①~③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자료에 두 기호가 제시되면 각 기호가 서로 다른 분류 관점을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형식 중심 분류와 주제 중심 분류, 또는 포괄 전개와 국가별 세분 전개가 함께 제시되면 별법·양자택일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별 항목의 참·거짓을 먼저 확정한 뒤 조합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농업법령 368.052/520.23, 생명과학 목록 016.47/470.26, 기독교 잡지 078.23/230.5, 미국소설 843/849.3은 모두 양자택일 사례이다.

NoteBase

8. 다음 문항의 자료를 KDC 제6판에 따라 분류할 경우, 조기표인 '언어공통구분표'의 적용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odern Indonesian practical conversation』
② 『Study of Spanish dialects in the 18th century』
③ 『Understanding French novel writing method』
④ 『Vietnamese grammar for beginner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의 조기표인 언어공통구분표를 개별 언어의 문법·회화·방언 등 언어 자체의 공통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언어공통구분표는 여러 개별 언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법, 작문, 회화, 방언 등의 세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조기표이다. 자료의 중심 주제가 언어의 학습·연구인지, 문학 작품의 창작 기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언어 일반의 작문은 적용 대상이지만, 소설과 같은 문학 장르의 창작법은 문학 분야의 주제이므로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Modern Indonesian practical conversation』의 중심 주제는 인도네시아어의 실용 회화이다. 회화는 개별 언어에 공통으로 설정할 수 있는 언어 주제이므로 언어공통구분표의 적용 대상이다.
② O — 『Study of Spanish dialects in the 18th century』의 중심 주제는 18세기의 스페인어 방언이다. 방언은 언어공통구분표의 적용 대상이며, 시대 한정은 중심 주제가 방언이라는 점을 바꾸지 않는다.
③ X — 『Understanding French novel writing method』의 'novel writing method'는 프랑스어 일반 작문법이 아니라 프랑스 소설의 창작 기법을 뜻한다. 따라서 언어공통구분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올바르게 고치면 '프랑스어 일반 작문법'처럼 언어 자체의 작문을 다룬 자료가 언어공통구분표의 적용 대상이다.
④ O — 『Vietnamese grammar for beginners』의 중심 주제는 초급자를 위한 베트남어 문법이다. 문법은 개별 언어에 공통으로 설정되는 언어 주제이므로 언어공통구분표의 적용 대상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writing method'만 보고 언어의 작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바로 앞의 'novel'이 중심 주제를 한정하므로 이는 언어 일반의 작문이 아니라 문학 장르인 소설의 창작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제의 핵심 명사를 먼저 확인한다. 문법·회화·방언·언어 일반의 작문처럼 언어 자체를 다루면 언어공통구분표를 검토하고, 소설·시·희곡의 창작법처럼 특정 문학 장르를 다루면 문학 분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언어의 문법·회화·방언·일반 작문은 언어공통구분표, 소설 창작법은 문학이다.

NoteBase

9. DDC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주류는 학문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 ㉡ 다른 분류법에 존재하지 않는 강력한 접근수단으로 유강목의 구성체계 및 배열구조를 개관하는 요약(summaries)을 제공한다.
> ㉢ 기호의 장단을 통해 주제의 상하관계를 표현한다.
> ㉣ 여러 패싯을 기호화하여 합성할 때 어떤 순서로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preference order)를 제공하고 있다.

① ㉠ ② ㉠, ㉢
③ ㉠, ㉡, ㉢ ④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DDC의 학문 중심 배열, 요약표, 계층적 기호법과 패싯 합성 시 적용되는 순서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DC는 지식을 학문 분야별로 배열하는 열거식 분류법을 기본으로 하며, 주류와 각 강·목 등의 요약표를 통해 분류체계의 전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게 한다. 분류기호는 일반적으로 주제가 세분될수록 길어지는 계층적 기호법을 사용한다. 여러 패싯을 합성할 때 결합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인용순서(citation order)이며, 우선순위(preference order)와 구별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ㄱ, ㄴ, ㄷ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만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DDC의 주류는 학문분류에 기반을 둔다는 ㄱ뿐 아니라, 분류체계와 배열구조를 개관하는 요약을 제공한다는 ㄴ과 기호의 길이로 주제의 계층관계를 나타낸다는 ㄷ도 옳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 ㄱ과 ㄷ만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ㄴ의 요약(summaries)도 DDC의 구조와 배열을 한눈에 보여 주는 접근수단이므로 옳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O — ㄱ은 DDC의 학문 중심 주류 배열, ㄴ은 강·목 등의 구성과 배열을 개관하는 요약, ㄷ은 기호가 길어질수록 더 구체적인 하위 주제를 나타내는 계층적 기호법을 각각 정확히 설명한다. 따라서 ㄱ, ㄴ, ㄷ의 조합이 맞다.

④ X — ㄹ을 포함하고 ㄷ을 제외한 점이 틀렸다. 여러 패싯을 합성할 때 결합 순서를 제시하는 것은 우선순위(preference order)가 아니라 인용순서(citation order)이며, ㄷ은 옳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ㄹ의 '우선순위'와 '인용순서'를 혼동하기 쉽다. 패싯을 어떤 순서로 결합해 분류기호를 구성하는지는 인용순서이고, 여러 주제 가운데 어느 주제를 먼저 선택하여 분류할지를 정하는 우선순위와는 기능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DDC의 특징은 '학문 중심 배열－요약을 통한 구조 파악－기호 길이에 따른 계층 표현'으로 확인한다. 패싯의 조합 순서를 묻는 표현이 나오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인용순서인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DDC는 학문 중심·요약 제공·계층적 기호법이며, 패싯 결합 순서는 인용순서이다.

NoteBase

10. DDC 제23판의 적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학 서지 및 목록』은 '016'에 분류한 다음, 수학을 의미하는 '51'을 첨가한다.
② 『생산관리(management of production)』는 사회과학(300)의 하위주제에 분류한다.
③ 『초등학교 음악교육과정』은 교육학(370)에 분류한 다음 세분한다.
④ 『개인 전기』는 도서관에 따라 '92' 또는 'B' 등으로 간략하게 분류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DDC에서 특정 주제의 서지, 교육 단계가 명시된 교과과정, 생산관리, 개인 전기를 각각 어느 분류 영역에 배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DC는 자료의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서지·목록은 016에 주제번호를 합성하고, 특정 교육 단계의 교과과정은 해당 교육 단계의 교육학 아래에서 세분한다. 생산관리는 경영관리 영역인 658.5에 분류하며, 개인 전기는 도서관의 방침에 따라 주제 아래의 전기 표준세구분이나 간략한 전기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학 서지 및 목록'은 특정 주제의 서지·목록이므로 016 뒤에 수학을 뜻하는 51을 덧붙여 016.51로 분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사회과학(300)의 하위주제'이다. 생산관리는 경영관리의 생산 영역이므로 사회과학 300 아래가 아니라 기술 600류의 658.5에 분류한다.

③ O — '초등학교'라는 특정 교육 단계가 제시된 음악교육과정은 음악 자체인 780류보다 초등교육의 교과과정으로 보아 교육학 370류 아래에서 세분한다.

④ O — 개인 전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인물의 활동 주제에 전기 표준세구분을 붙여 분류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분류 방침에 따라 92나 B 같은 간략한 전기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management라는 말만 보고 생산관리를 사회과학 300류에 넣기 쉽다. DDC에서 생산관리는 일반적인 사회과학 항목이 아니라 경영관리의 세부 분야인 658.5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의 표면적인 단어보다 DDC의 배정 원칙을 먼저 확인한다. 서지·목록은 016과 주제번호를 합성하고, 학교급이 특정된 교과과정은 해당 교육 단계 아래에 두며, 생산관리는 658.5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 주제 서지는 016+주제번호, 초등 교과과정은 교육학, 생산관리는 658.5, 개인 전기는 주제+전기 또는 간략기호로 기억한다.

NoteBase

11. 아래의 내용은 DDC 제23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Encyclopedia of physical associations』와 『Collection of physics』라는 자료를 DDC 제23판으로 분류할 경우, 가장 적합한 분류기호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530	Physics
.01	Philosophy and theory
.02	Miscellany
.03-.09	Standard subdivisions
.1	Theories and mathematical physics
.8	Measurement

① 530.03 -- 530
② 530.03 -- 530.08
③ 530.06 -- 530
④ 530.06 -- 530.0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명에 나타난 말을 자료의 형식과 실제 주제로 구분한 뒤 DDC의 표준세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Encyclopedia of physical associations: 백과사전이라는 형식을 가진 자료이지만, 실제 분류 대상은 물리학 관련 단체이다.
Collection of physics: 물리학 전반을 모아 놓은 일반 자료이며, 제목의 Collection만으로 별도의 표준세목을 붙이지 않는다.

핵심 개념

표준세목은 본표의 주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관점·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덧붙이는 기호이다. 이때 표준세목에 해당하는 말이 자료의 형식인지 실제 연구 대상인지 구별해야 한다. 물리학 관련 단체를 다루는 자료에는 단체·조직을 뜻하는 .06을 적용하고, 물리학 일반의 단순한 모음은 기본번호 530에 분류한다.

적용 기준

서명의 겉모양보다 자료가 무엇을 다루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Encyclopedia는 자료 형식이지만 physical associations는 실제 주제이므로 530에 단체·조직의 표준세목 .06을 붙여 530.06으로 분류한다. Collection of physics는 물리학 일반 자료이므로 530으로 분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첫 자료를 530.03으로 본 부분이 틀렸다. .03은 사전·백과사전 등의 형식을 나타내지만, 이 자료는 물리학 관련 단체가 실제 주제이므로 530.06으로 고쳐야 한다. 둘째 자료의 530은 옳다.
② X — 두 분류기호가 모두 틀렸다. 첫 자료는 물리학 관련 단체를 다루므로 530.03이 아니라 530.06이고, 둘째 자료는 물리학 일반의 모음이므로 530.08이 아니라 530이다.
③ O — 물리학 관련 단체를 주제로 한 첫 자료는 530.06, 물리학 일반을 모은 둘째 자료는 530으로 분류하므로 제시된 순서가 모두 맞다.
④ X — 첫 자료의 530.06은 옳지만, 둘째 자료의 530.08이 틀렸다. .08은 사람 집단에 관한 표준세목이며 Collection이라는 말에 붙이는 기호가 아니므로 53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첫 서명의 Encyclopedia만 보고 곧바로 .03을 붙이거나, 둘째 서명의 Collection을 사람 집단으로 오해해 .08을 붙이는 것이 함정이다. 표준세목은 제목의 단어에 기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자료의 형식인지 실제 주제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명에서 형식을 나타내는 말과 실제로 다루는 대상을 나눈다. 실제 주제가 단체·조직이면 .06을 우선 적용하고, 단순히 여러 물리학 내용을 모은 일반 자료라면 별도의 표준세목 없이 기본번호 530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물리학 단체가 주제이면 530.06, 물리학 일반 모음이면 530이다.

NoteBase

12. 커터-샌본 저자기호표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적으로는 저자의 성에서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채기한 후 기호표에서 성명(姓名)에 해당하는 기호를 기재한 다음 저작기호를 부기한다.

② 저자명에 해당하는 번호가 기호표에 없을 경우 선치하는 성명의 기호를 선택한다.

③ 서로 다른 저자가 동일한 분류기호 아래에서 동일한 저자기호를 가지게 될 경우 저작기호로 조정한다.

④ 전기자료는 피전자를 기호화하고, 저자의 성을 저작기호로 간주하여 부기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커터-샌본 저자기호표에서 표목에 대응하는 저자기호를 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분류기호·저자기호가 생겼을 때의 조정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커터-샌본 저자기호표는 저자의 성 등 표목을 문자와 숫자로 바꾸어 같은 분류기호 안에서 자료를 배열하게 하는 표이다. 기본 저자기호는 저자의 성에서 첫 알파벳과 표의 숫자를 결합한다. 서로 다른 저자의 저자기호가 같은 분류기호 아래에서 겹치면 저자기호를 조정하며, 저작기호는 동일 저자의 개별 저작 등을 구별하는 데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본적으로 저자의 성에서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취하고, 저자기호표에서 그 성명에 대응하는 숫자 기호를 붙여 저자기호를 만든다.

② O — 저자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번호가 표에 없으면 알파벳순으로 바로 앞에 놓이는 성명의 기호, 즉 선치하는 성명의 기호를 선택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저작기호로 조정한다'이다. 서로 다른 저자가 같은 분류기호 아래에서 동일한 저자기호를 갖게 된 경우에는 개별 저작을 나타내는 저작기호로 처리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저자기호를 조정하여 서로 다른 저자를 구별한다.

④ O — 전기자료는 피전자, 즉 전기의 대상 인물을 기준으로 기호화하고 전기 저자의 성을 저작기호처럼 덧붙여 동일 인물에 관한 여러 전기를 구별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저자기호'와 '저작기호'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서로 다른 저자의 기본 기호가 충돌한 것이므로 저자기호를 조정해야 하며, 저작기호로 충돌을 해소하는 경우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서 충돌한 대상이 저자인지 저작인지 먼저 확인한다. 서로 다른 저자의 저자기호가 겹치면 저자기호를 조정하고, 동일 저자의 개별 저작을 나눌 때 저작기호를 사용한다. 전기자료에서는 저자가 아니라 피전자가 기본 기호화 대상이다.

암기 포인트

저자끼리 겹치면 저자기호 조정, 저작끼리 나누면 저작기호, 전기는 피전자 중심이다.

NoteBase

13.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재창의 한은도서편목법은 동양서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규칙이며, 저자기본저록을 원칙으로 하여 저자표목을 한글의 자모순으로 배열하도록 규정한 규칙이다.

② 박봉석의 동서편목규칙은 표제목록을 기본목록으로 수용하여 오늘날의 기술목록법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저록방식이다.

③ 커터(C.A. Cutter)는 그의 사전체목록규칙에서 목록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 기능으로 자료검색을 들고 있다.

④ 파니찌(A. Panizzi)의 목록규칙에는 표목의 선정 및 형식, 표목의 배열, 서지사항의 기술, 참조기입 등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요 목록규칙의 적용 대상·기본표목·배열 방식과 목록학자별 핵심 업적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고재창의 한은도서편목법: 서양서를 대상으로 저자기본저록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표목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박봉석의 동서편목규칙: 표제목록을 기본목록으로 채택하여 표제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식의 성격을 보인다.
커터의 사전체목록규칙: 목록의 첫 번째 기능으로 저자·표제·주제 가운데 아는 요소를 통해 특정 자료를 찾는 검색 기능을 제시한다.
파니찌의 목록규칙: 표목의 선정과 형식, 표목의 배열, 서지사항의 기술, 참조기입 등을 다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동양서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규칙'과 '저자표목을 한글의 자모순으로 배열'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한은도서편목법은 서양서를 대상으로 한 규칙이며, 저자기본저록을 원칙으로 하여 저자표목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② O — 박봉석의 동서편목규칙은 표제목록을 기본목록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표제를 중심으로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오늘날의 기술목록법과 실질적으로 통하는 방식이다.
③ O — 커터는 사전체목록규칙에서 목록의 첫 번째 기능을 자료 검색으로 제시하였다. 즉 저자·표제·주제 중 하나를 알고 있을 때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④ O — 파니찌의 목록규칙에는 표목의 선정과 형식, 표목의 배열, 서지사항의 기술, 참조기입 등 목록 작성의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은 '저자기본저록'이라는 맞는 내용을 끼워 넣은 뒤 적용 대상을 동양서로, 배열 방식을 한글 자모순으로 바꾸었다. 한 문장에 맞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도 대상과 배열 원칙까지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록규칙 문항은 '규칙명 → 적용 대상 → 기본저록 또는 기본목록 → 배열 방식'의 순서로 나누어 판단한다. 학자 문항은 '커터 → 목록의 기능', '파니찌 → 근대 목록규칙의 주요 구성 사항'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한은도서편목법은 서양서·저자기본저록·알파벳순, 동서편목규칙은 표제목록, 커터는 검색 기능, 파니찌는 표목·배열·기술·참조이다.

NoteBase

14. 국제목록원칙규범(200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1961년 국제목록원칙규범을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새로운 원칙규범이다.
> ㉡ IFLA에서 발간한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에서 제시한 개념모형에 기초한다.
> ㉢ 각국의 목록규칙을 제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 기타 분야에서 작성한 서지파일과 다른 데이터파일에도 적용 가능하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제목록원칙규범(2009)의 성격, 이론적 기반, 제정 목적,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목록원칙규범(2009)은 국제적으로 일관된 목록규칙의 제정을 이끌기 위해 IFLA가 마련한 원칙이다. 1961년 파리원칙을 대체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하였고, IFLA의 FRBR 개념모형에 기초한다. 또한 각국의 목록규칙 제정을 위한 지침이며, 도서관뿐 아니라 기록관·박물관 및 기타 공동체가 작성한 서지파일과 다른 데이터파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은 모두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진술인 ㄷ과 ㄹ이 빠져 있다. 틀린 부분은 'ㄱ, ㄴ만 선택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선택해야 한다.

② X
ㄱ, ㄴ, ㄷ은 옳지만, 기록관·박물관 등이 작성한 데이터파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ㄹ도 옳다. 틀린 부분은 'ㄹ을 제외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선택해야 한다.

③ X
ㄱ, ㄷ, ㄹ은 옳지만, 이 규범이 IFLA의 FRBR 개념모형에 기초한다는 ㄴ도 옳다. 틀린 부분은 'ㄴ을 제외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선택해야 한다.

④ O
ㄱ은 파리원칙의 대체·확장, ㄴ은 FRBR 개념모형에 기초, ㄷ은 목록규칙 제정을 위한 지침, ㄹ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등의 데이터파일까지 포괄하는 적용 범위를 각각 정확히 설명한다. 따라서 네 진술을 모두 포함한 ④가 옳다.

오답 포인트

ㄹ의 적용 범위를 도서관목록에만 한정한다고 오해하거나, 국제목록원칙규범을 FRBR과 무관한 독립 규칙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이 규범은 파리원칙보다 범위를 넓혔고 FRBR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하므로 ㄴ과 ㄹ도 포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목록원칙규범(2009)이 나오면 '파리원칙의 대체·확장 → FRBR 기반 → 각국 목록규칙의 지침 → 도서관을 넘어 기록관·박물관 등의 데이터파일까지 적용'의 네 축으로 각 진술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2009 국제목록원칙은 '파리원칙 확장, FRBR 기반, 규칙 제정 지침, 적용 범위 확대'로 기억한다.

NoteBase

15.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본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표제는 축약할 수 없지만, 너무 긴 경우 적당히 줄여 적을 수 있다.

② 표제가 없는 자료는 해당 자료의 주제내용에 합당한 표제를 새로 만들어 각괄호로 묶어 보기한다. 이 경우 본표제의 출처가 된 정보원을 주기한다.

③ 종합표제나 대표표제 없이 세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만 열기하고 있는 자료는, 개별표제와 그와 관련된 책임표시를 서로 짝지어 으뜸정보원에 표시된 순서대로 기재한다.

④ 연속간행물에 간행빈도를 나타내는 어구가 표제의 활자와 같은 크기로 표제에 나타나 있는 경우 간행빈도를 포함하여 본표제로 기술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본표제를 정하는 방법과 본표제에 포함되는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표제는 자료를 대표하여 식별하는 주된 표제로, 원칙적으로 으뜸정보원에 나타난 형식과 순서에 따라 그대로 기술한다. 표제가 없으면 자료의 주제내용을 바탕으로 본표제를 만들어 각괄호로 묶고 그 출처를 주기한다. 종합표제가 없는 합집은 개별표제와 관련 책임표시를 짝지어 기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너무 긴 경우 적당히 줄여 적을 수 있다'이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는 본표제를 임의로 축약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본표제는 길더라도 축약하지 않고 그대로 기술한다'이다.

② O — 표제가 없는 자료는 주제내용에 합당한 본표제를 새로 만들어 각괄호로 묶어 기술하고, 그 본표제를 만든 근거가 된 정보원을 주기한다.

③ O —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이 세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가 열기되어 있으면 각 개별표제와 그에 대응하는 책임표시를 짝지어 으뜸정보원에 나타난 순서대로 기재한다.

④ O — 간행빈도를 나타내는 어구가 표제와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제에 나타나 있으면 그 어구를 포함하여 본표제로 기술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축약할 수 없다'고 한 뒤 '너무 길면 줄일 수 있다'는 예외를 덧붙여 그럴듯하게 만든 선지이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원칙에서는 표제의 길이를 이유로 본표제를 임의 축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본표제 선지는 먼저 '정보원에 나타난 대로 기술하는가'를 확인한다. 표제가 없으면 본표제 작성·각괄호·출처 주기, 종합표제가 없으면 개별표제와 책임표시의 대응 관계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본표제는 그대로, 무표제 자료는 작성하여 각괄호와 출처 주기, 무종합표제 합집은 표제와 책임표시를 짝지어 기술한다.

NoteBase

16. 한국목록규칙 제4판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년 개정판)을 적용하여 전자책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료유형에 '[전자책]' 또는 '[eBook]'으로 기술한다.

② 260 필드의 ▼b에는 전자책의 발행이나 배포, 제작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기술한다.

③ 300 필드의 ▼a에 특정자료종별의 기술을 생략한다.

④ 시스템조건에 관한 사항을 538 필드의 ▼a에 기술하되, 전자책의 경우에는 '시스템조건:'이라는 표출어를 기술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ORMARC 통합서지용 2014년 개정판을 전자책에 적용할 때 자료유형표시, 발행사항, 형태사항, 시스템 사항 주기를 어느 필드와 식별기호에 기록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료유형표시는 전자책이라는 세부 명칭이 아니라 전자자료라는 표준화된 매체 명칭을 사용한다. 260 필드는 발행·배포·제작 사항, 300 필드는 형태사항, 538 필드는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 사항을 기록한다. 핵심 대응은 260 ☒b=발행처·배포처 등, 300 ☒a=특정자료종별과 수량, 538 ☒a=시스템에 관한 사항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자책]’ 또는 ‘[eBook]’이 틀린 표현이다. 자료유형표시는 ‘[전자자료]’ 또는 ‘[electronic resource]’로 기술한다.

② O
260 필드의 ☒b는 발행처·배포처 등을 기술하는 식별기호이다. 따라서 전자책의 발행이나 배포, 제작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이곳에 기술한다.

③ X
‘특정자료종별의 기술을 생략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300 필드의 ☒a에는 전자책도 특정자료종별과 수량을 기술한다.

④ X
‘전자책은 시스템조건:이라는 표출어를 기술하지 않는다’가 틀린 표현이다. 538 필드의 ☒a에는 필요한 시스템 사항을 기술하며, 시스템 조건을 나타내는 도입어를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생략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전자책이라는 일상적 명칭을 그대로 자료유형표시로 쓸 것처럼 만든 ①, 온라인 자료이므로 형태사항을 생략할 것처럼 만든 ③, 538 ☒a의 입력 내용과 표출어 처리를 뒤섞은 ④가 함정이다. 필드 번호만 외우기보다 각 식별기호가 담는 정보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구의 대상이 매체 명칭인지, 발행 주체인지, 물리적 형태인지, 이용 환경인지 구분한다. 매체 명칭은 표준 자료유형표시, 발행 주체는 260 ☒b, 특정자료종별과 수량은 300 ☒a, 시스템 조건은 538 ☒a에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전자자료 표시는 [전자자료], 발행처는 260 ☒b, 형태는 300 ☒a, 시스템은 538 ☒a이다.

NoteBase

17. 다음은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년 개정판)으로 작성한 레코드의 예시이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필드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	100	▼a라르손, 부르스.
	245	▼a일반인을 위한 창세기 해설 /▼d부르스 라르손 저 ;▼e한국창조과학회 역.
㉡	246	▼aGenesis commentary for the public.
	260	▼a서울 :▼b대한성서공회,▼c2008.
㉢	490	▼a성서해설시리즈 ;▼v5.
㉣	630	▼a성서.▼p창세기▼x해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국목록규칙 제4판이 다루는 서지기술 사항과 다루지 않는 표목·주제 접근점 필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표제와 책임표시, 발행사항, 총서사항 등 서지기술을 위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246 여러 형태의 표제와 490 총서사항은 적용 대상이지만, 표목 선정·형식이나 주제명 접근점을 위한 100 개인명 기본표목과 630 주제명부출표목-통일표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ㄱ은 100 필드, ㄴ은 246 필드, ㄷ은 490 필드, ㄹ은 630 필드이므로 적용하지 않는 필드는 ㄱ과 ㄹ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100 필드는 적용하지 않지만, ㄴ의 246 필드는 여러 형태의 표제를 기록하는 서지기술 필드이므로 적용한다. ‘ㄱ, ㄴ’이 아니라 ‘ㄱ, ㄹ’이 옳다.
② O — ㄱ의 100 개인명 기본표목과 ㄹ의 630 주제명부출표목-통일표제는 각각 표목과 주제 접근점에 해당하므로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적용하지 않는 필드이다.
③ X — ㄴ의 246 여러 형태의 표제와 ㄷ의 490 총서사항은 모두 서지기술에 해당하므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 필드는 ‘ㄴ, ㄷ’이 아니라 ‘ㄱ, ㄹ’이다.
④ X — ㄹ의 630 필드는 적용하지 않지만, ㄷ의 490 필드는 총서사항을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적용한다. ‘ㄷ, ㄹ’이 아니라 ‘ㄱ, ㄹ’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MARC의 모든 접근용 필드를 서지기술 필드로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246은 검색에도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상 여러 형태의 표제를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100·630과 같은 표목·주제 접근점 필드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드 번호만 외우기보다 필드의 기능을 먼저 분류한다. 표제·발행·총서처럼 자료 자체를 기술하는 필드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기본표목이나 주제명 접근점을 설정하는 필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기술은 246·490, 표목·주제 접근점은 100·630이다. 적용 제외는 ㄱ·ㄹ이다.

NoteBase

18.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년 개정판)에서 언어 정보와 가장 관련 없는 것은?

① 리더 ② 008 필드

③ 041 필드 ④ 546 필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ORMARC의 리더와 언어 정보를 직접 기록하는 필드들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더는 레코드의 길이·유형·상태 등 레코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고정길이 데이터 요소이다. 반면 008 필드의 언어 부호, 041 필드의 언어부호, 546 필드의 언어 주기는 자료의 언어를 식별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리더는 레코드의 구조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으며, 자료의 언어 정보를 직접 기술하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언어 정보와 가장 관련 없는 항목이다.

② X — 008 필드에는 자료의 언어를 나타내는 언어 부호가 기록되므로 언어 정보와 직접 관련된다. '언어 정보와 관련 없는 필드'가 아니라 '고정길이 데이터 요소에서 언어 부호를 기록하는 필드'로 고쳐야 한다.

③ X — 041 필드는 언어부호 필드로서 본문, 번역문, 초록 등의 언어를 부호로 나타내므로 언어 정보와 직접 관련된다. '언어 정보와 관련 없는 필드'가 아니라 '자료의 언어를 부호로 나타내는 필드'로 고쳐야 한다.

④ X — 546 필드는 언어 주기 필드로서 자료에 사용된 언어·문자 등에 관한 사항을 문장으로 설명하므로 언어 정보와 직접 관련된다. '언어 정보와 관련 없는 필드'가 아니라 '언어에 관한 주기를 기록하는 필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리더도 고정길이 데이터 요소라는 점 때문에 008 필드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008에는 언어 부호가 들어가고, 리더에는 자료의 언어 자체를 나타내는 항목이 없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언어 관련 필드를 묻는 문항에서는 '부호로 기록하는가, 주기로 설명하는가'를 먼저 본다. 008과 041은 언어를 부호로 나타내고 546은 언어를 주기로 설명하지만, 리더는 레코드의 구조와 처리 정보를 나타낸다.

암기 포인트

언어는 008·041·546, 레코드 구조는 리더이다.

NoteBase

19. Frey의 『Communicating with the future』는 국내에서 『미래와의 대화』로 번역 발간되었다. 여기에 대한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년 개정판)의 레코드를 작성할 경우, ㉠과 ㉡에 들어갈 표시기호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245	▼aCommunicating with the future /▼dby Thomas Frey.
260	▼aNew York :▼bDaVinci Institute, ▼c2011.
[㉠]	▼a프레이, 토머스.▼t미래와의 대화.

245	▼a미래와의 대화 /▼d토머스 프레이 지음 ;▼e이미숙 옮김.
260	▼a부천 :▼b북스토리,▼c2016.
[㉡]	▼aFrey, Thomas.▼tCommunicating with the future.

① 765, 767 ② 767, 765
③ 772, 775 ④ 775, 772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ORMARC의 연관저록 필드에서 현재 작성 중인 레코드가 원서인지 번역서인지에 따라 767과 765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 767 → ㉡ 765이다.
767은 원서 레코드에서 그 원서의 번역저록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영어 원서 『Communicating with the future』의 레코드에서 한국어 번역서 『미래와의 대화』를 연결하는 ㉠에는 767이 들어간다.
765는 번역서 레코드에서 그 번역의 바탕이 된 원어저록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서 레코드에서 영어 원서를 연결하는 ㉡에는 765가 들어간다.
왜 이 순서: 같은 두 자료를 연결하더라도 현재 작성하는 레코드가 원서이면 번역저록인 767, 번역서이면 원어저록인 765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765와 767의 방향을 반대로 배치하였다. 영어 원서 레코드의 ㉠은 번역저록을 연결하므로 767이고, 한국어 번역서 레코드의 ㉡은 원어저록을 연결하므로 765이다. 올바르게는 '767, 765'이다.
② O — 원서 레코드의 ㉠에 번역저록 필드 767, 번역서 레코드의 ㉡에 원어저록 필드 765를 배치하므로 맞다.
③ X — 772와 775는 원서와 번역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드가 아니다. 772는 부록과 그 모체 자료의 관계, 775는 다른 판의 관계에 쓰인다. 올바르게는 '767, 765'이다.
④ X — 775와 772는 각각 다른 판 및 부록의 모체 자료와 관련된 필드이므로 원서·번역서 연결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767, 765'이다.

오답 포인트

①처럼 765와 767을 서로 바꾸기 쉽다. 필드에 적힌 자료의 언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작성하는 레코드에서 상대 자료가 '번역본'인지 '원어본'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772·775는 연관저록 필드라는 점은 같지만 번역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 레코드와 연결 대상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현재 레코드가 원서이고 연결 대상이 번역서이면 767, 현재 레코드가 번역서이고 연결 대상이 원서이면 765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서에서 번역서를 보면 767, 번역서에서 원서를 보면 765이다.

NoteBase

20. KORMARC 형식(전거통제용, 2016년 개정판)의 전거레코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거레코드는 서지레코드와 마찬가지로 리더, 디렉토리, 가변길이필드로 구성된다.

② 리더는 24자리로 고정되어 있으며, 리더를 포함한 모든 필드의 끝에 필드종단기호(FT)를 기술한다.

③ 각 표시기호에 대해서 한 개씩의 디렉토리 항목이 만들어지며 이 항목은 표시기호, 필드길이, 필드시작위치 세 부분으로 편성된다.

④ 가변길이필드는 제어필드와 데이터필드로 구성되며, 데이터필드의 끝에는 필드종단기호 다음에 레코드 종단기호(RT)가 기술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ORMARC 레코드를 구성하는 리더·디렉토리·가변길이필드의 구조와 필드종단기호(FT), 레코드종단기호(RT)의 위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ORMARC 레코드는 리더, 디렉토리, 가변길이필드로 구성된다. 리더는 레코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24자리 고정 길이 부분이고, 디렉토리는 각 가변길이필드의 표시기호·필드길이·필드시작위치를 알려 주는 색인 부분이며, 가변길이필드는 제어필드와 데이터필드로 나뉜다. 디렉토리와 각 가변길이필드의 끝에는 필드종단기호(FT)가 오고, 레코드 전체의 끝에는 레코드종단기호(RT)가 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KORMARC 레코드의 기본 구성은 리더, 디렉토리, 가변길이필드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부분은 '리더를 포함한 모든 필드의 끝에 필드종단기호(FT)를 기술한다'이다. 리더는 24자리로 고정되지만 리더의 끝에 FT를 붙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디렉토리의 끝과 각 가변길이필드의 끝에 FT를 기술한다고 해야 한다.

③ O — 디렉토리의 각 항목은 표시기호 3자리, 필드길이 4자리, 필드시작위치 5자리로 이루어진 12자리 항목이므로 옳다.

④ O — 가변길이필드는 제어필드와 데이터필드로 구성되고 각 필드 끝에는 FT가 온다. 마지막 가변길이필드의 FT 다음에는 레코드 전체의 끝을 나타내는 RT가 오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리더가 24자리로 고정된다'는 옳은 설명 뒤에 '리더를 포함한 모든 필드의 끝에 FT가 온다'는 잘못된 설명을 결합하였다. FT는 레코드의 모든 구성요소에 일률적으로 붙는 기호가 아니라 디렉토리와 가변길이필드의 끝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조와 종단기호를 따로 확인한다. 구조는 '리더 → 디렉토리 → 가변길이필드', 디렉토리 항목은 '3자리 표시기호 + 4자리 필드길이 + 5자리 필드시작위치', 종단은 '디렉토리·각 가변길이필드 끝 FT, 레코드 전체 끝 RT'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리더 24자리, 디렉토리 항목 3-4-5, 필드 끝 FT, 레코드 끝 RT이다.

NoteBase

21.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사용하여 주제명을 부여하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우선어를 제외한 모든 용어를 주제명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해당 자료의 주제명으로 가장 적당한 용어를 찾아 가급적 3개 이내의 주제명을 부여한다.
③ 해당 자료의 주제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상위어, 하위어도 주제명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적절한 주제명이 없는 경우 우선 신규 용어를 사용한 후 주제명의 등록을 요청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해 자료에 주제명을 부여할 때의 용어 선택, 부여 개수, 계층관계 용어의 활용, 신규 용어 처리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제명표목표는 자료의 주제를 일관된 통제어로 표현하기 위한 어휘표이다. 비우선어는 우선어로 안내하기 위한 접근어이므로 주제명으로 직접 부여하지 않으며, 자료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적절한 주제명을 우선 선택한다. 적절한 등재 용어가 없으면 신규 용어의 등록을 요청하여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비우선어는 우선어로 연결해 주는 접근어이므로 주제명으로 직접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우선어를 제외한 등재 용어를 주제명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 자료의 주제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를 선정하고, 주제명은 가급적 3개 이내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O — 자료가 넓은 범위의 내용을 포괄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관련 상위어와 하위어도 주제명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자료에 계층관계 용어를 기계적으로 함께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의 광범위한 주제 범위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우선 신규 용어를 사용한 후'이다. 등록되지 않은 신규 용어를 먼저 임의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는 적절한 주제명이 없을 때 신규 용어의 등록을 먼저 요청하고, 등록 절차를 거친 주제명을 사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등록 요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들어 있어 옳아 보이지만, 사용과 등록의 순서를 뒤집었다. 신규 용어는 선사용·후등록이 아니라 선등록 요청·후사용이다. 또한 ③의 상위어·하위어 부여는 자료의 주제가 광범위한 경우에 허용되는 원칙이라는 조건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명 부여 문항에서는 먼저 비우선어인지, 자료의 주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가급적 3개 이내인지, 미등록 신규 용어를 임의로 먼저 사용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특히 신규 용어는 등록 절차가 사용보다 앞선다.

암기 포인트

비우선어는 부여하지 않고, 주제명은 적절하게 3개 이내, 신규어는 등록 요청 후 사용한다.

NoteBase

22. 다음은 시어즈 주제명표목표(Sears list of subject headings) 형식을 사용한 주제명의 예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OVID-19 x Coronavirus Disease-19 x 2019 Novel Coronavirus Infection xx Immunology xx Respirators

① 'x'는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USE'에 상응한다.
② 'Coronavirus Disease-19'는 표목으로 사용될 수 없다
③ 'Respirators'는 표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④ "'Immunology'는 'COVID-19'도 보시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어즈 주제명표목표에서 x와 xx가 나타내는 참조 관계 및 각 용어의 표목 사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x: 해당 표목을 위해 사용된 비채택어를 나타낸다. x 뒤의 용어에서는 현재 표목으로 '보시오' 참조가 이루어지며, LCSH의 UF(Used For)에 해당한다.
xx: 현재 표목과 '도 보시오' 관계를 맺는 다른 채택표목을 나타낸다. xx 뒤의 용어도 독립된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x는 LCSH의 USE에 상응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x는 현재 표목을 위해 사용된 비채택어를 표시하므로, 올바르게는 LCSH의 UF(Used For)에 상응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O — 'Coronavirus Disease-19' 앞에는 x가 있으므로 이 용어는 비채택어이며 표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채택표목인 'COVID-19'를 사용한다.
③ O — 'Respirators' 앞의 xx는 다른 채택표목과의 '도 보시오' 관계를 뜻하므로, 'Respirators'는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O — 'Immunology'가 xx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이 표목과 COVID-19 사이에 '도 보시오' 참조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Immunology' 항목에는 'COVID-19도 보시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x를 비채택어 쪽에서 채택표목으로 보내는 USE와 혼동하기 쉽다. 제시된 목록은 채택표목인 COVID-19 아래에서 관계를 표시하므로, x는 그 표목을 위해 사용된 비채택어, 즉 UF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맨 위의 채택표목을 기준으로 기호를 해석한다. x 뒤의 용어는 표목으로 쓰지 않는 비채택어이고, xx 뒤의 용어는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 보시오' 관계의 채택표목이다.

암기 포인트

x는 UF·비채택어, xx는 '도 보시오'·채택표목이다.

NoteBase

23.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을 분리하여 RDA 본문에 구두법 등의 구분기호는 없지만 요소의 배열순서는 정해져 있다.

② 목차구성에 있어 AACR2에서는 자원유형별로 장이 구성되어 있지만, RDA에서는 기술요소별로 되어 있다.

③ 'Bible'에 대한 접근점을 'O.T.'와 'N.T.' 대신에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와 같이 완전어로 기술한다.

④ 전체적인 이론적 기반을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인 ISBD가 아니라 FRBR, FRAD, FRSAD에 두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RDA가 AACR2와 달리 자료유형 중심이 아니라 요소 중심으로 기술하며, 기술 내용과 화면에 표시하는 형식을 분리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RDA는 자원을 식별·기술하고 관련 개체 간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내용표준이다. 무엇을 기록할지는 규정하지만, 요소를 어떤 순서와 구두법으로 표시할지는 특정하지 않는다.
AACR2는 자료유형별 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목록규칙이고, RDA는 FRBR 계열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기술요소별 지침을 제시한다.
ISBD는 서지기술의 요소 배열과 구두법 등 표시 형식에 관련된 표준이며, FRBR·FRAD·FRSAD는 각각 서지레코드·전거데이터·주제전거데이터의 개념적 기반을 제공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요소의 배열순서는 정해져 있다'가 틀린 표현이다. RDA는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표시 측면을 분리하므로 구두법뿐 아니라 요소의 표시 순서도 고정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RDA 본문에는 구두법 등의 구분기호와 요소의 배열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이다.
② O — AACR2는 도서·지도자료·악보 등 자료유형별로 장을 구성하지만, RDA는 자료유형별 장이 아니라 제목, 책임표시, 발행사항 등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지침을 구성한다.
③ O — RDA는 불필요한 약어 사용을 줄이고 완전한 형식을 기록하는 방향을 취하므로 'O.T.'와 'N.T.' 대신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를 사용한다.
④ O — RDA의 개념적 기반은 FRBR, FRAD, FRSAD이며, ISBD는 요소의 배열과 구두법 등 서지기술의 표시 형식에 관한 표준이므로 RDA의 전체적인 이론적 기반과는 구별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구두법이 없다'는 앞부분이 맞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맞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뒤의 '배열순서는 정해져 있다'가 반대이다. RDA는 기록할 데이터의 내용과 그 데이터를 배열·표시하는 방식을 분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RDA 관련 선지는 내용과 표시를 먼저 구분한다. '무엇을 기록하는가·어떤 관계를 표현하는가'는 RDA의 영역이고, '어떤 순서와 구두법으로 보여 주는가'는 ISBD 같은 표시 규칙의 영역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AACR2는 자료유형 중심, RDA는 요소·관계 중심이다. RDA는 내용, ISBD는 배열·구두법이다.

NoteBase

24. DCMES는 자원의 내용, 지적재산권, 구현형 속성을 기술하는 인스턴스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지적재산권 범주에 해당하는 요소만을 모두 고른 것은?

㉠ creator ㉡ publisher ㉢ rights ㉣ contributor

①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DCMES의 세 범주 가운데 지적재산권 범주에 속하는 요소를 빠짐없이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CMES는 자원의 특성을 내용, 지적재산권, 구현형 속성의 세 범주로 구분한다.
지적재산권 범주는 자원에 책임을 지거나 기여한 주체 및 자원의 권리에 관한 요소를 묶은 범주이다. creator는 자원의 내용 작성에 주된 책임을 진 주체, publisher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한 주체, contributor는 자원 제작에 기여한 주체, rights는 자원에 적용되는 권리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creator, publisher, rights, contributor는 모두 지적재산권 범주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creator와 ㄷ rights는 지적재산권 요소이지만, ㄴ publisher와 ㄹ contributor를 빠뜨린 조합이다. 틀린 부분은 두 요소만 고른 점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② X — ㄱ creator, ㄴ publisher, ㄷ rights는 지적재산권 요소이지만, ㄹ contributor도 자원 제작에 기여한 주체를 나타내는 지적재산권 요소이다. 틀린 부분은 ㄹ을 제외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③ X — ㄱ creator, ㄷ rights, ㄹ contributor는 지적재산권 요소이지만, ㄴ publisher도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한 주체를 나타내는 지적재산권 요소이다. 틀린 부분은 ㄴ을 제외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골라야 한다.
④ O — creator, publisher, rights, contributor는 모두 자원의 책임·기여 주체 또는 권리 정보를 기술하므로 지적재산권 범주에 속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publisher를 구현형 속성과 관련된 요소로 오해하거나 contributor를 부차적인 요소라고 보아 제외하기 쉽다. 그러나 publisher와 contributor도 creator, rights와 함께 지적재산권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고른 ①~③은 모두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소가 자원의 주제·내용을 나타내는지, 책임·기여 주체와 권리를 나타내는지, 물리적·디지털 구현 형태를 나타내는지를 먼저 가른다. 사람이나 기관의 책임·기여 또는 권리와 직접 연결되면 지적재산권 범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적재산권은 creator·publisher·contributor의 책임·기여 주체와 rights의 권리 정보이다.

NoteBase

2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 시맨틱 웹의 기반 기술로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의미적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구문으로 고안되었다.
- W3C에서 제안한 표준적인 구문규칙이다.
- 메타데이터 사이의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 및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 일반적으로 XML 언어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 구조화된 메타데이터의 인코딩, 교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구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② 온톨로지(ontology)
③ 네임스페이스(namespace)
④ 인코딩 스킴(encoding schem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맨틱 웹에서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고 교환하는 RDF의 특징을 다른 관련 용어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웹 자원과 그 관계를 주어-술어-목적어 형태로 표현하는 W3C 표준 메타데이터 기술 프레임워크이다. RDF/XML과 같은 형식으로 직렬화할 수 있어 구조화된 메타데이터의 교환과 재사용을 지원한다.
온톨로지는 특정 영역의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정의한 지식 체계이고,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의 소속을 URI로 구분하여 이름 충돌을 막는 장치이며, 인코딩 스킴은 메타데이터 값을 일정한 형식이나 어휘에 따라 표현하도록 정한 규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제시문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의미적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고, 메타데이터의 교환·상호운용·재사용을 지원하는 W3C 표준 프레임워크인 RDF를 설명한다. RDF는 일반적으로 RDF/XML과 같은 XML 기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X — 온톨로지는 특정 영역의 개념, 속성 및 개념 간 관계를 형식적으로 정의한 지식 체계이다. 틀린 표현은 제시문의 설명을 '온톨로지'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RDF'이다.
③ X — 네임스페이스는 XML 등에서 URI를 이용해 요소나 속성 이름의 소속을 구분하고 같은 이름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틀린 표현은 제시문의 설명을 '네임스페이스'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RDF'이다.
④ X — 인코딩 스킴은 메타데이터 값을 일정한 표기 형식이나 통제어휘에 따라 기록하도록 정한 규칙이다. 틀린 표현은 제시문의 설명을 '인코딩 스킴'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RDF'이다.

오답 포인트

RDF, 온톨로지, 네임스페이스, 인코딩 스킴은 모두 메타데이터 환경에서 함께 쓰이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W3C 표준', '메타데이터 교환과 상호운용', 'XML 기반 표현'은 개별 이름이나 값의 규칙이 아니라 메타데이터 기술 프레임워크인 RDF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W3C 표준 프레임워크와 자원·관계의 기술 및 메타데이터 교환이 함께 제시되면 RDF로 판단한다. 개념과 관계의 지식 체계는 온톨로지, 이름 충돌 방지는 네임스페이스, 값의 표기 규칙은 인코딩 스킴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RDF는 자원과 관계의 기술·교환, 온톨로지는 개념과 관계의 정의, 네임스페이스는 이름 구분, 인코딩 스킴은 값 표현 규칙이다.

NoteBase